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4.20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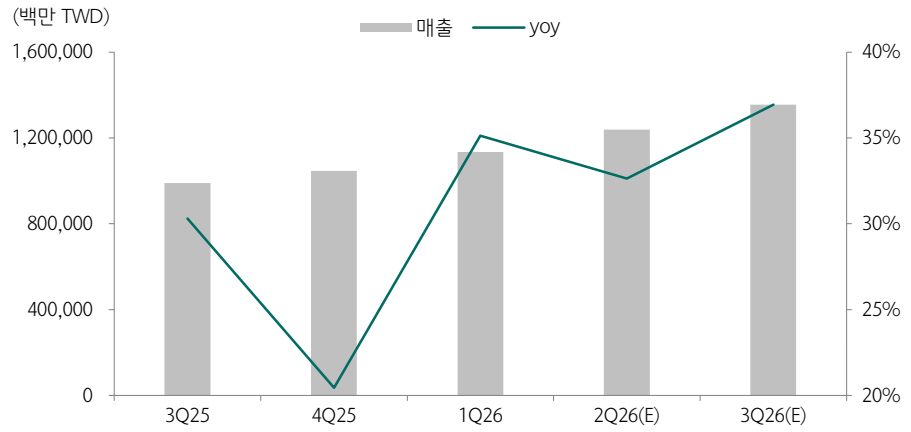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TSMC와 ASML 실적 시사점

AI용 인프라 기업 호실적 기대: 실적 시즌 대응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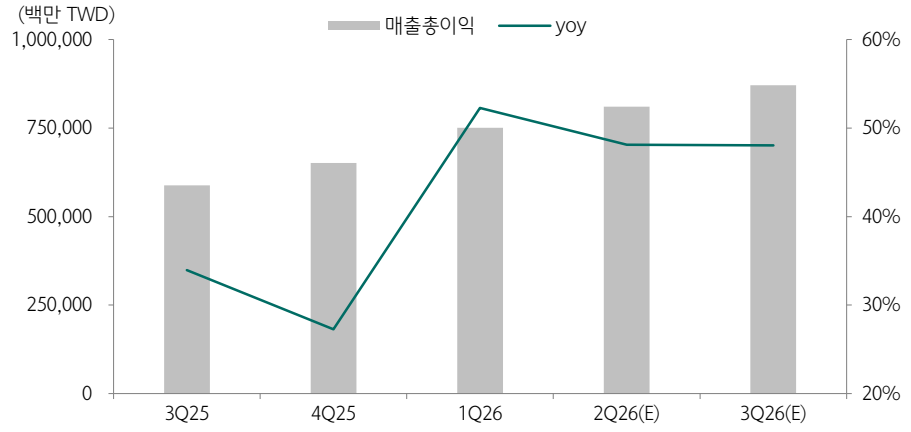
- 하드웨어 중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어 실적주 중심의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2분기는 전통적으로 소비자용 IT 하드웨어 기업들의 비수기다. AI용 B2B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B2C 중심 업체들은 보수적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AI 가속기(범용 GPU 및 ASIC), CPU, HBM, 네트워킹, EUV 및 웨이퍼 장비, 첨단 패키징 등의 기업들이 실적 시즌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 지난주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는 병목 상태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와 첨단 제조 장비 기업의 현재 상황을 보여줬다. 시장참여자들은 두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수급 완화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소비자향 제품 판매 약세를 압도하는 AI/HPC 수요, 자본지출 업사이클의 진행, 견조한 선단공정과 첨단 장비 수요, 외형 성장과 함께 좋아지는 수익성 등이었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는 일부 존재하지만, 운영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 소비자향 약세보다 AI/HPC 판매 강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TSMC는 소비자 및 가격 민감형 시장 수요가 약해졌다고 설명했지만, AI 관련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고 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PC와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 더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FY 1Q26 플랫폼 매출 기준 HPC는 전분기 대비 20% 증가해 비중 61%를 기록했으나, 스마트폰은 11% 감소해 매출 비중 26%에 그쳤다. 견조한 3나노 공정 수요의 배경에 대해서도 AI와 HPC라고 답변했다. ASML도 반도체 업황 성장 전망이 주로 AI 인프라 투자에 의해 견인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고객들이 수요 대응을 위해 공격적으로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 자본지출 업사이클은 이미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TSMC는 FY 2026 가이던스 범위(520억 ~ 560억 달러) 상단을 제시했다. 지난 3년 누적 자본지출이 약 1,0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공격적인 증설 계획이다. 향후 3년 자본지출은 과거 3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매출 증가 속도가 투자 확대 속도를 앞질러 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한 만큼, 효율 훼손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ASML은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고객들이 자본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캐파 확장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EUV 장비 생산 확대 계획도 제시했고, 2026년 실적 전망치도 상향했다.
- 선단공정과 첨단 장비 수요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는 최신 노드와 장비 주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TSMC의 매출 대부분은 이미 선단공정 중심 구조다. 3nm는 25%, 5nm는 36%, 7nm는 13%를 차지했다. AI 기반 컴퓨팅 수요가 강해지면서 최신 공정 제품 판매가 양호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3나노 대응을 위한 증설도 진행 중이다. 클린룸, 장비, 신규 팹, 노드 전환 등 일정 전반이 앞당겨지고 있다. ASML도 선단 로직과 메모리 확장으로 첨단 노광장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TSMC의 발표와 일치한다. 장비회사 생산계획이 상향될 정도로 주문이 강하다는 의미다.
- 이번 투자 사이클은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수익성 개선까지 동반하고 있다. TSMC의 FY 1Q26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모두 개선됐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함께 생산 효율과 가동률 상승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수익성이 높은 선단공정과 AI 및 HPC향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계절성과 소비자 노출이 높은 영역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다. 다음 분기에도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ASML은 FY 2026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지만 매출총이익률 전망은 유지했다. 매출이 더 확대되더라도 수익성 훼손은 제한적이란 의미다. 두 기업의 실적은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적 시즌엔 AI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도표1. TSMC 분기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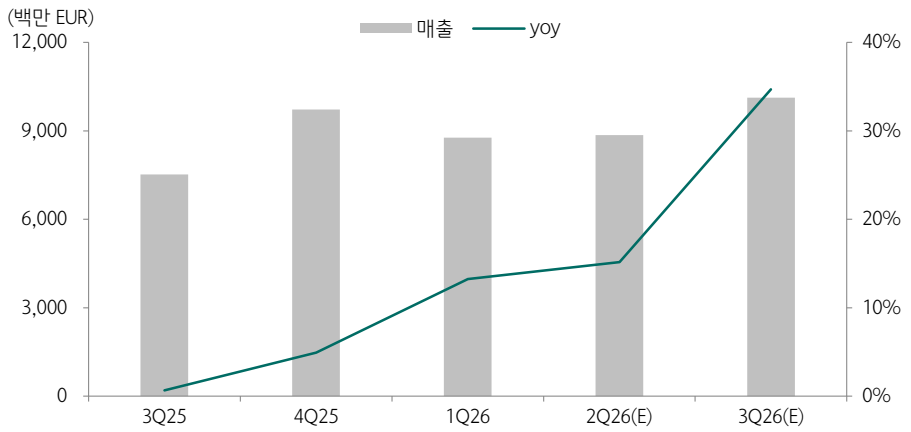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2. TSMC 분기별 매출총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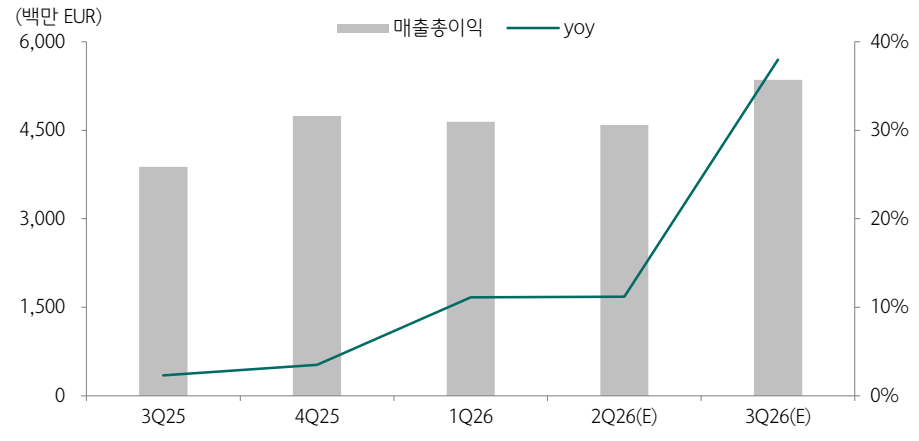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3. ASML 분기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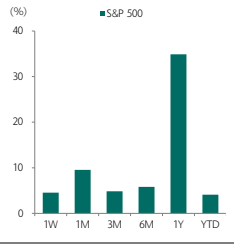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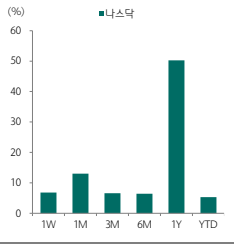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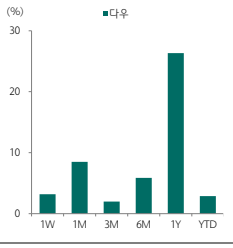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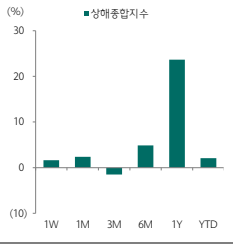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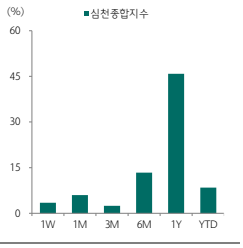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4. ASML 분기별 매출총이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126.1	24,468.5	49,447.4	4,051.4	2,743.7
1W (%)	4.5	6.8	3.2	1.6	3.4
					

주) 4월 10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4월 13일~4월 17일) 리뷰: 중동 불안 완화되며 3대지수 역사적 고점 경신

- 지난주 미국증시 3대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은 각각 3.2%, 4.5%, 6.8% 상승했다. 3대지수 모두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3.3%,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5.6% 올랐다. 변동성 지수 VIX는 9.1% 급락하며 19.2에서 17.5가 됐다. 증시 상승의 주요 재료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다.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WTI는 14.5%, Brent는 5.1% 내렸다.
- 이란이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우려가 약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더 없을 것이며, 전 세계를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는 일도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담판의 공식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이틀 내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요 쟁점은 대부분 마무리 됐다고 밝혔으나,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핵 포기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 있을 것이다.
- 시장참여자들은 가치주보다 성장주를 더 선호했다. 성장주 ETF(VUG)와 가치주 ETF(VTV) 모두 상승했지만, 성장주 ETF의 수익률이 가치주 ETF 대비 우월했다(VUG +7.1%, VTV +1.5%). 성장주와 중소형주의 강세는 투자심리 개선을 시사한다. GICS Level 1 기준 상승 상위 섹터는 정보기술(+8.1%), 경기소비재(+6.6%), 커뮤니케이션 서비스(+6.3%) 등 성장섹터다. 부동산(+3.8%)이 그 뒤였는데, 미국채 금리 하락 영향이다. 하락섹터는 에너지(-3.5%), 유틸리티(-1.7%), 소재(-0.4%) 등이고, 필수소비재는 보합, 헬스케어는 0.9% 올랐다. 에너지는 유가 하락이 부정적이었다.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헬스케어에 대한 비선호는 섹터의 방어적 성격 때문이다.
- M7기업인 테슬라(+14.8%), 마이크로소프트(+14%), 메타(+9.3%), 알파벳(+7.7%), 엔비디아(+6.9%), 아마존(+5.1%), 애플(+3.7%) 등이다.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강한 숏커버리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의 YTD 주가 변화는 -12.6%, -10.9%다. 지난주 네덜란드 자동차 규제당국이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FSD 사용을 허가했다. 유럽에서 첫 FSD 승인이다. 안정성이 검증되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나머지 유럽연합에서도 FSD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반등이 특징적이었다.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ETF(IGV)는 13.9% 상승했다.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지난주 견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등의 주가는 각각 8.5%, 16.5%, 10.4% 상승했다. 사이버보안 기업들의 수익률도 양호했다. 주요 사이버 보안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 클라우드 플레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각각 7.8%, 20.4%, 11.9% 올랐다.

≫ 이번 주(4월 20일~4월 24일) 프리뷰: 미국과 이란의 협상, 차기 연준의장 인준, 기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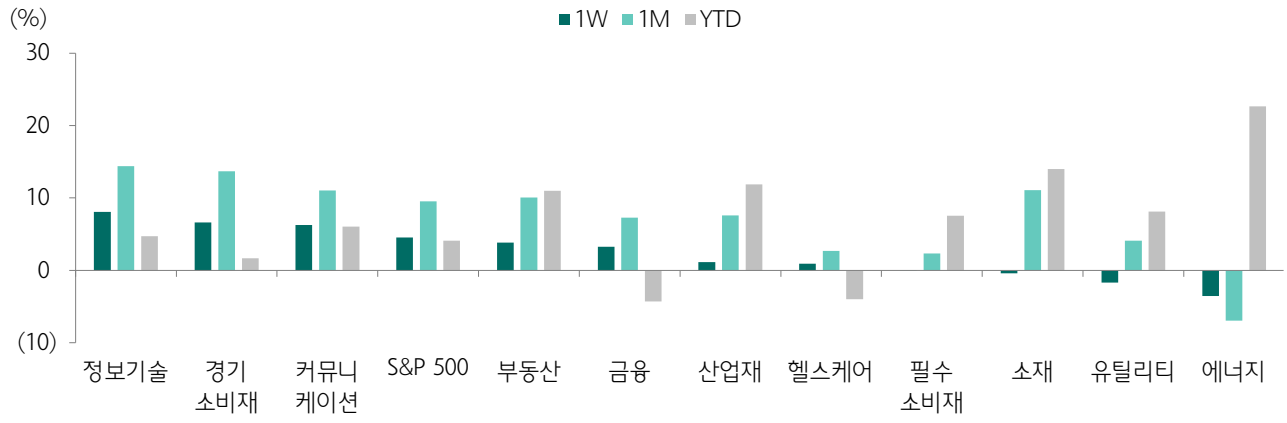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 주목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비공식 종전 담판은 20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까지 이란과 종전 협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휴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해서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현지시각 18일 이란이 49일 만에 동부 영공을 국제 항공편에 부분 개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날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폭격하겠다고도 했다. 이란군은 미군 군함에 무인항공기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란 선박 나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군 군함을 타격한 것이라고 이란 정부는 공식 발표했다.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모두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캐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후보의 인준 청문회가 21일에 예정돼 있다. 우리는 4월 미주Pick에서 차기 연준 의장 인준에 대한 불안을 시장에 부정적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캐빈 워시 지명자의 인준 불확실성이 야기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현 연준의장의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연준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조사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은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연준의 중립성을 위해 파월 의장의 조사를 마칠 때까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국 연방 검찰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연준 이사직으로 남겠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임 임명 후에도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로 잔류할 경우 해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시장참여자들에겐 캐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의 청문회가 무사히 마무리된다면 호재가 될 것이다. 친 정부 성격의 인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나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면 증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3월 소매판매는 양호한 수치가 나올 여지가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OBBBA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3월 미주 Pick하나에서 우리는 OBBBA 효과를 언급했다. OBBBA 항목 중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팁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주 및 지방세 공제 확대 등 덕분이다. 미국인들의 평균 세금 환급금은 300~1,000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핵심은 주 및 지방세 공제 확대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주 세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고소득 중산층들은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을 것이다. 필수소비 부분이 충족된 이들은 재량 소비를 했을 여지가 높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는 4월 21일 ADP 주간 고용 변화(이전치 39,300 건) / 3월 소매판매(MoM, 예상치 +1.6%, 이전치 +0.6%) / 3월 핵심 소매판매(MoM, 예상치 +0.9%, 이전치 0.5%) / 레드북 / 3월 잠정주택판매(MoM, 이전치 +1.8%), 22일 1분기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Now(QoQ, 예상치 +1.3%, 이전치 +1.3%) / MBA 30년물 모기지 금리(이전치 6.42%) /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913,000 배럴), 23일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이전치 207,000 건) /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이전치 52.3), 24일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예상치 47.6, 이전치 47.6) / 4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예상치 46.1, 이전치 46.1), 4월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 기대(예상치 4.8%, 이전치 4.8%) / 4월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기대(예상치 3.4%, 이전치 3.4%)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22일 월러 연준이사(비둘기, 투표권 있음)가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20일 RIO / INFY / STLD / ZION / CLF / ALK, 21일 GE / UNH / RTX / BHP / ISRG / DHR / CB / NOC / MMM / DHI / MSCI / EQT / UAL / HAL / VICR, 22일 TSLA / LRCX / GEV / PM / IBM / TXN / T / BA / VRT / CME / NOW / MCO / TEL / KMI / ELV / URI / CCI, 23일 INTC/ KLAC / AXP / SAP / TMO / NEE / GILD / SCCO / HON / LMT / NEM / CMCSA / FCX / DLR / KDP / DOW / VRSN / HAS / AAL, 24일 PG / HCA / SLB / NVT / MOGA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4/17)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126.1	1.2	4.5	9.5	4.8	5.8	34.9	4.1
나스닥	미국	24,468.5	1.5	6.8	13.0	6.6	6.4	50.2	5.3
다우	미국	49,447.4	1.8	3.2	8.5	2.0	5.9	26.3	2.9
STOXX600	유럽	626.6	1.6	1.9	9.3	3.9	9.5	23.7	5.8
KOSPI	한국	6,233.3	0.7	7.3	7.8	27.6	63.4	151.0	47.9
KOSDAQ	한국	1,171.0	0.1	6.5	0.8	19.9	33.7	63.1	26.5
상해종합지수	중국	4,051.4	-0.1	1.6	2.4	-1.5	4.9	23.6	2.1
심천종합지수	중국	2,743.7	0.4	3.4	6.0	2.5	13.4	45.9	8.4
항테크지수	홍콩	26,160.3	-0.9	1.0	3.5	-1.2	1.2	22.3	2.1
TOPIX	일본	3,791.7	0.8	1.8	5.0	4.6	16.7	48.2	11.2
니케이 225	일본	58,863.6	0.7	4.2	10.3	11.1	19.7	69.5	16.9
니프티 50	인도	24,353.6	0.6	2.4	5.4	-3.5	-5.8	2.1	-6.8
Vietnam	베트남	1,817.2	-0.1	3.8	10.3	-4.0	11.0	49.1	1.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4.1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정보기술: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주도
- 경기소비재: 테슬라의 상승 긍정적. 투자심리 개선 및 FSD 네덜란드 승인이 호재로 작용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에너지: 미국과 이란 협상 소식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4/14	**샌디스크, 나스닥 100 편입 확정. 주가 11.83% 급등 사상 최고치** • 샌디스크(SNDK)가 4월 20일 장 개시 전 아틀라시안(TEAM)을 대체하며 나스닥 100에 편입 확정. 주가 952.5달러로 마감, 시간외거래에서도 2.23% 추가 급등해 1,000달러에 육박. 지난해 2월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상장한 지 1년여 만의 나스닥 100 편입으로, 올해 수익률 +301%, 상장 후 수익률 +2,879%. 나스닥 100 편입 시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의 자동 매수 유입이 기대되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4/14	**미국 3월 PPI MoM +0.5%, 시장 예상치 큰 폭 하회** • 미 노동부, 3월 PPI가 MoM +0.5%, YoY +4.0%로 시장 예상치(MoM +1.1%, YoY +4.6%)를 대폭 하회했다고 발표. 미·이란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16% 급등하며 상품 물가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서비스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상승폭을 제한. 근원 PPI도 MoM +0.1%, YoY +3.8%로 시장 예상치(0.4%, 4.1%)를 모두 하회.
4/15	**브로드컴, 메타와 AI 칩 다년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브로드컴(AVGO)이 메타(META)와 MTIA(메타 학습·추론 가속기) 칩 공급 및 공동 개발을 위한 다년·다세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초기 1GW 이상 규모로 시작해 2029년까지 수 기가와트 규모로 확대 예정. 브로드컴의 XPU 플랫폼을 기반으로 칩 설계·패키징·네트워킹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며, 이더넷 기반 고속 네트워킹 솔루션도 함께 공급. 한편 혹 탄 브로드컴 CEO는 이번 파트너십 확대에 따라 메타 이사회에서 물러나 어드바이저 역할로 전환.
4/16	**연준 베이지북 "이란 전쟁발 불확실성에 기업 고용·투자 결정 지연"** • 연준이 15일 공개한 4월 베이지북에서 중동 분쟁이 고용·가격결정·자본투자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많은 기업이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소폭 내지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으며, 소비자지출도 유가 상승과 기상 악화에도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고소득층과 달리 일반 소비자의 가계 재정 압박 징후는 지속. 에너지 비용은 모든 지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화물·운송비 및 석유 기반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투입비용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 고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정규직 대신 임시·계약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상업용 부동산은 데이터센터 중심의 산업용 부동산이 강세를 보였으며, 다음 FOMC는 이달 28일 개최 예정.
4/16	**구글, 57억 달러 정크본드 발행으로 AI 데이터센터 부외금융 확대** • 구글이 인디애나주 데이터센터 2개동 건설을 위한 57억 달러 규모 정크본드 발행에 착수. 구글이 직접 부채를 지지 않고 지급보강(backstop) 형태로 수요를 뒷받침하는 부외금융 방식으로, 재무제표 부담 없이 AI 인프라를 선제 확보하는 전략. 해당 시설은 AI 클라우드 기업 플루이드스택이 장기 임차하며, 플루이드스택은 최근 앤트로픽과 500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구글은 텍사스·테라울프 등 기존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활용해왔으며, 이번 인디애나 거래는 역대 최대 규모.
4/19	**글로벌 DRAM 공급 부족,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 •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2027년 말까지도 수요의 60%만 충족 가능할 전망. SK그룹 회장은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 수요 충족을 위해선 2026~2027년 연간 12% 생산 증가가 필요하나 실제 계획 증가율은 7.5%에 그침. 신규 생산설비는 대부분 AI 데이터센터용 HBM에 집중돼 일반 소비자용 D램 부족 해소에는 제한적 효과가 예상되며, 스마트폰·노트북·VR 헤드셋 등 전방위적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
4/20	**이란군 "미국의 이란 상선 발포는 휴전 합의 위반…보복하겠다"** •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20일 미군이 오만만에서 중국발 이란행 상선에 발포한 것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보복을 경고. 이란군도 이미 일부 미군 함정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망을 돌파하려 한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양측 간 긴장이 재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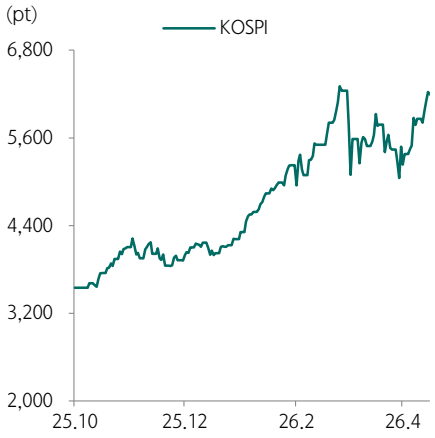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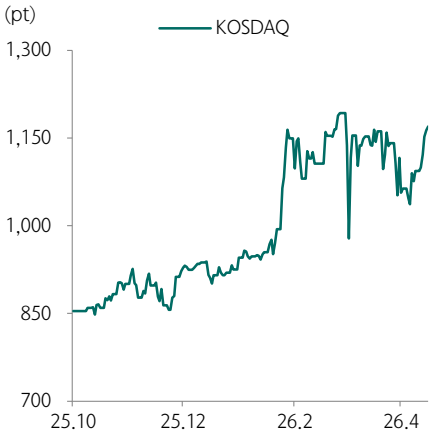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30	**31**	**1**	**2**	**3**
PRGS	NKE MKC FDS TE	CAG LW	AYI	
6	**7**	**8**	**9**	**10**
	LEVI	DAL STZ RPM APLD	PGR	BLK
13	**14**	**15**	**16**	**17**
GS FAST UNTY	JPM JNJ WFC C BLK ACI KMX	ASML BAC MS PGR PNC JBHT	TSM NFLX BX FCX PEP ABT SCHW PLD AA SNAP	TFC RF
20	**21**	**22**	**23**	**24**
SCHW RIO INFY STLD ZION CLF ALK	GE UNH RTX VZ ISRG LMT DHR NOC UAL	TSLA LRCX PM GEV IBM TXN T BA VRT CME NOW KMI ELV	AMZN KLAC CAT INTC SAP AXP NEE LMT HON NEM WDC FSLR AAL	PG XOM CVX ABBV HCA SLB NVT MOGA
27	**28**	**29**	**30**	
KO CDNS AMP	GOOGL MSFT V PEP	META AMGN F CMG TMO EQIX STX AMT	AAPL LLY MRK LIN COP SHOP BMY PH HWM PWR REGN R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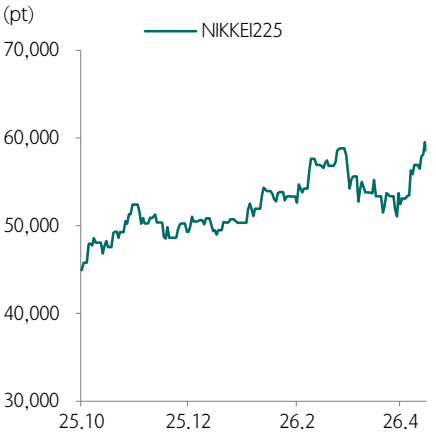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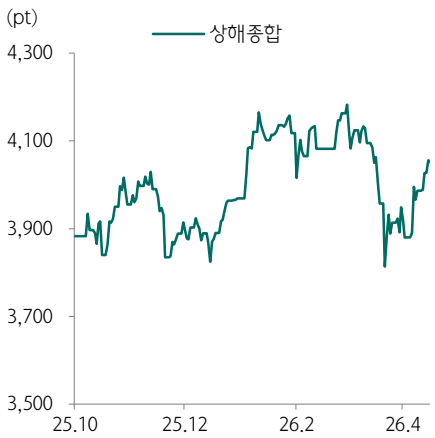
4/21(화)	• 3월 잠정주택매매 (이전치 MoM +1.8%) • 소매판매, 근원 소매판매 (이전치 MoM +0.6%, +0.5%) • 4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4/22(수)	• 주간 원유재고 (이전치 -0.913M)
4/23(목)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전치 207K) • 4월 제조업 PMI [P] (이전치 52.3) • 4월 서비스업 PMI [P] (이전치 50.3)
4/24(금)	• 4월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 (예상치 3.4%) • 4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예상치 46.1) • 4월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예상치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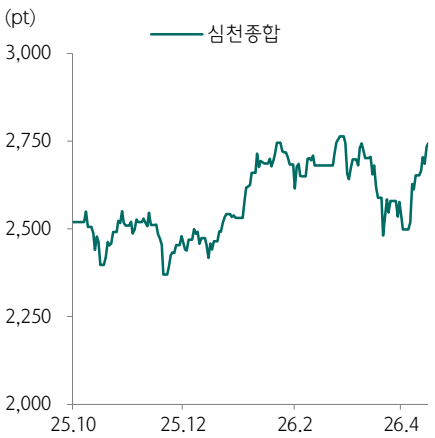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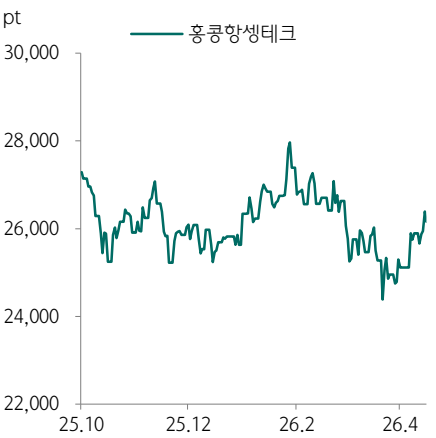

(pt)
KOSPI
6,800
5,600
4,400
3,200
2,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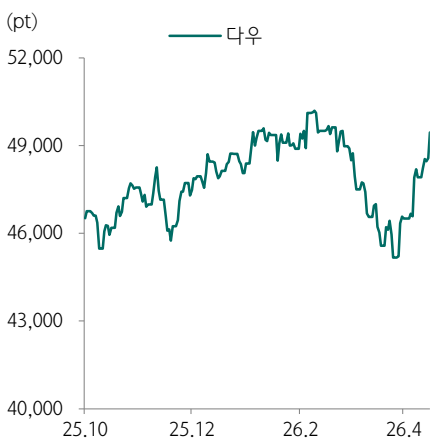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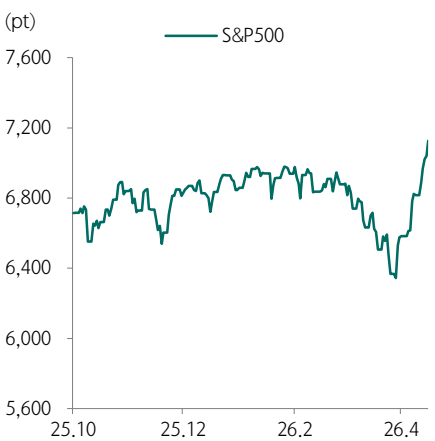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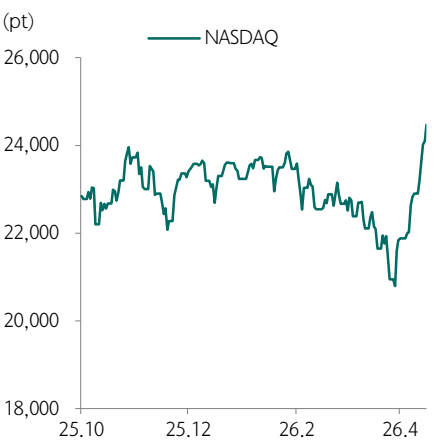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10
25.12
26.2
26.4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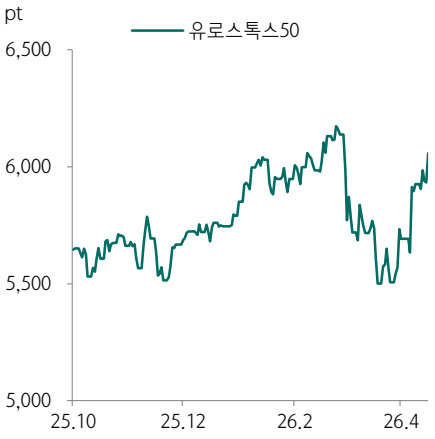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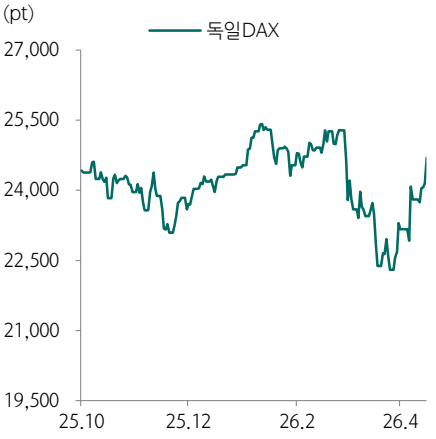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10
25.12
26.2
26.4


(pt)
S&P500
7,6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10
25.12
26.2
26.4


(pt)
NASDAQ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25.10
25.12
26.2
26.4

VIX
36
27
18
9
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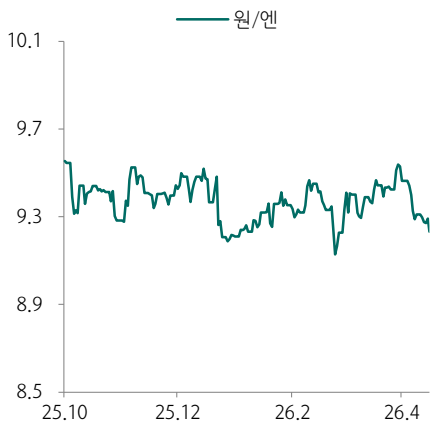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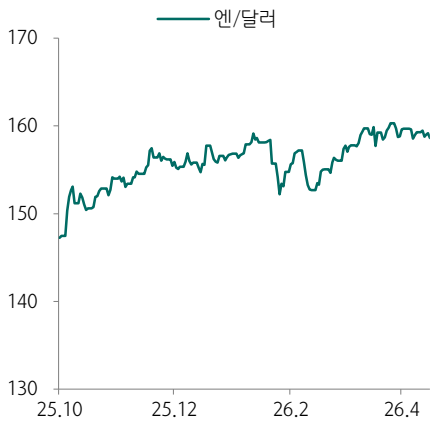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25.10
25.12
26.2
26.4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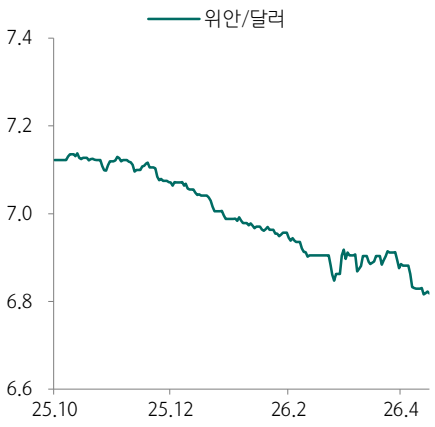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10
25.12
26.2
26.4

원/달러
1,540
1,470
1,400
1,33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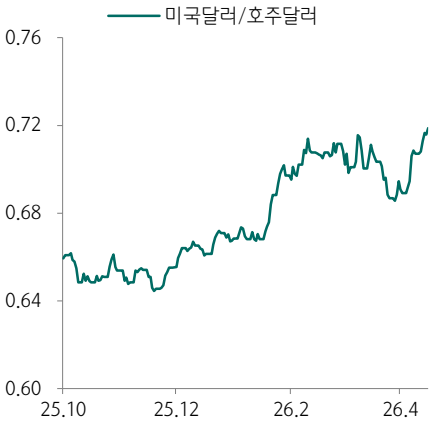

원/엔
10.1
9.7
9.3
8.9
8.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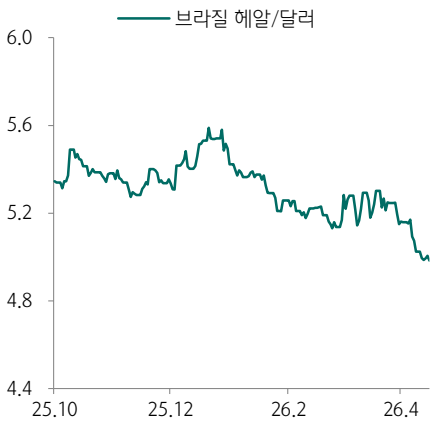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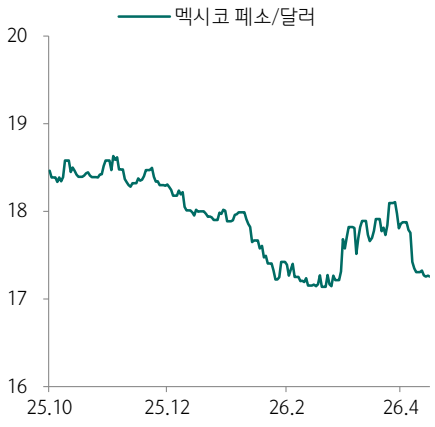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10
25.12
26.2
26.4


위안/달러
7.4
7.2
7.0
6.8
6.6
25.10
25.12
26.2
26.4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10
25.12
26.2
26.4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0.6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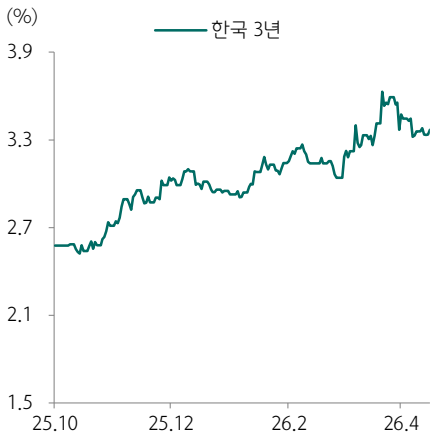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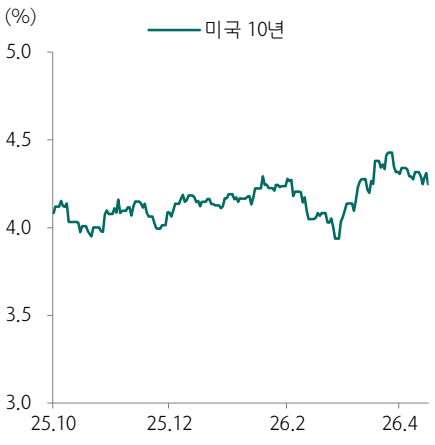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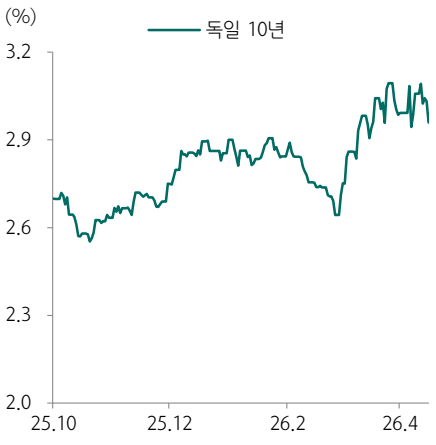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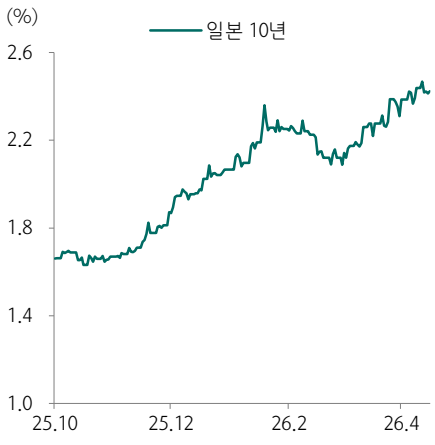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7
94
91
88
85
25.10
25.12
26.2
26.4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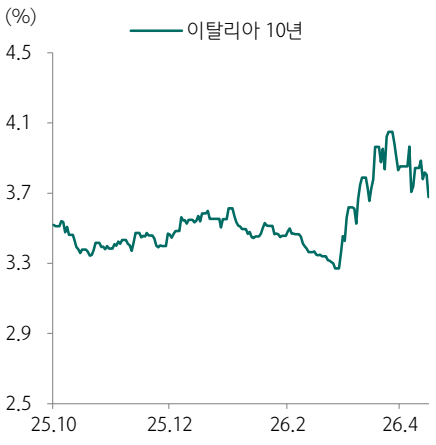

(%)
한국 3년
3.9
3.3
2.7
2.1
1.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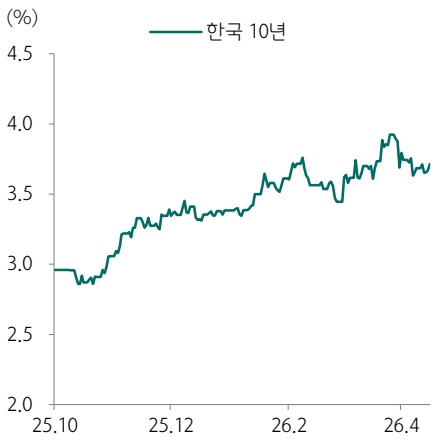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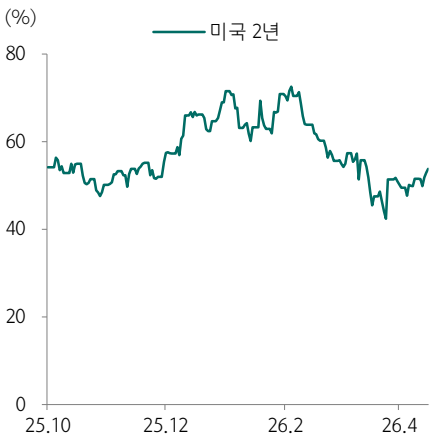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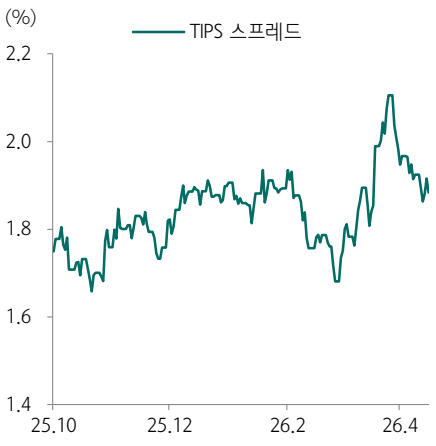

(%)
일본 10년
2.6
2.2
1.8
1.4
1.0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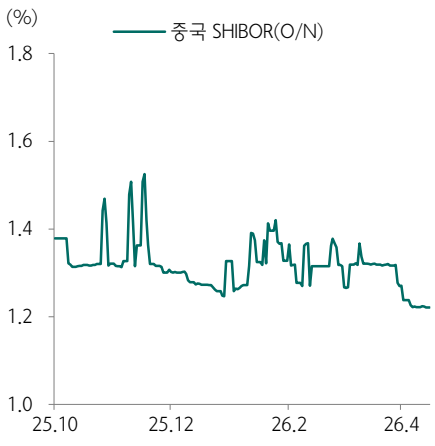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9
3.6
3.3
3.0
2.7
25.10
25.12
26.2
26.4


(%)
이탈리아 10년
4.5
4.1
3.7
3.3
2.9
2.5
25.10
25.12
26.2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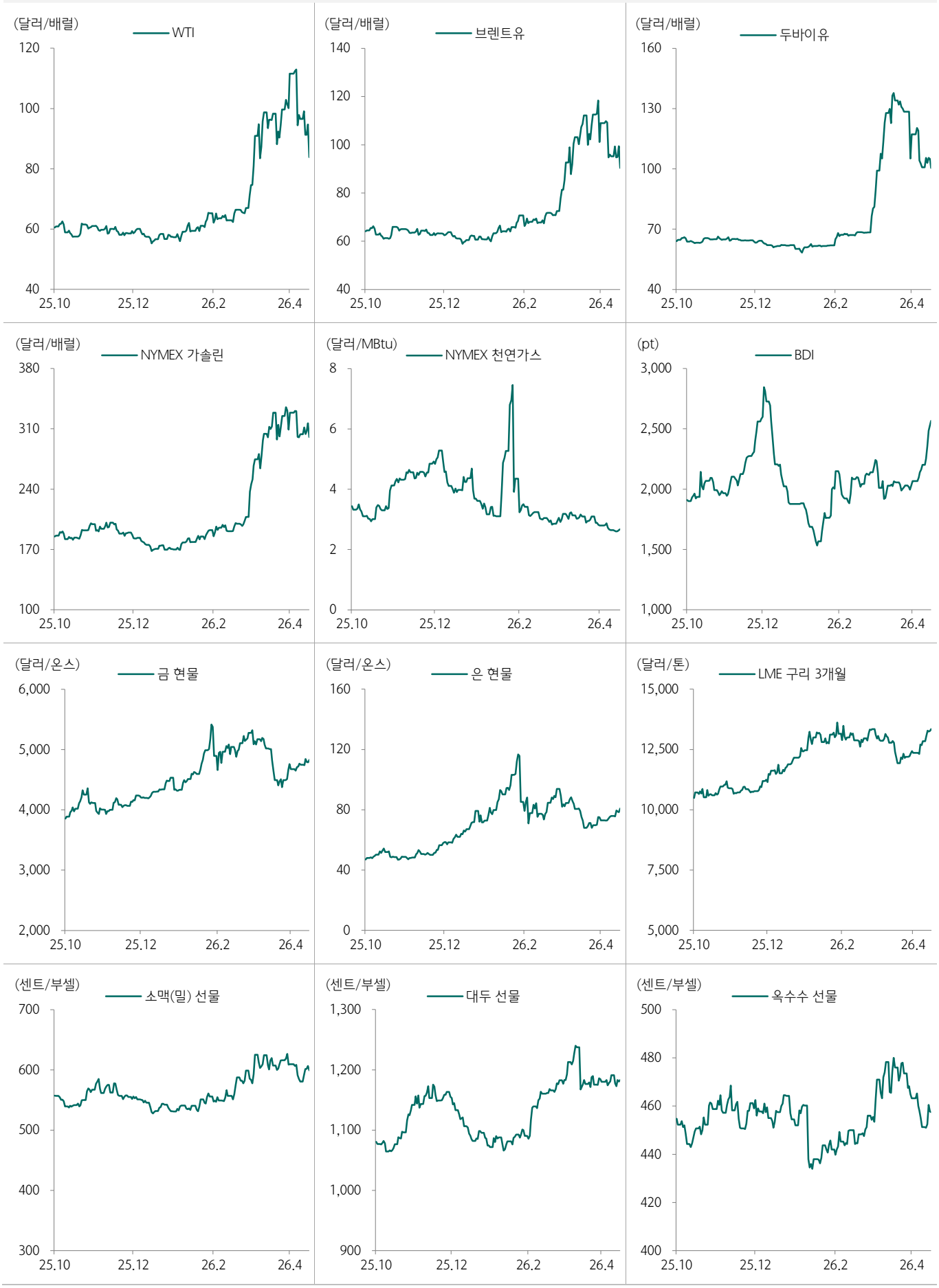

(%)
한국 10년
4.5
4.0
3.5
3.0
2.5
2.0
25.10
25.12
26.2
26.4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10
25.12
26.2
26.4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10
25.12
26.2
26.4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10
25.12
26.2
26.4

주요 원자재 추이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브렌트유
140
120
100
80
6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두바이유
160
130
100
70
40
25.10
25.12
26.2
26.4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380
310
240
170
100
25.10
25.12
26.2
26.4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10
25.12
26.2
26.4
(pt)
BDI
3,000
2,500
2,000
1,500
1,000
25.10
25.12
26.2
26.4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10
25.12
26.2
26.4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10
25.12
26.2
26.4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10
25.12
26.2
26.4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500
480
460
440
420
400
25.10
25.12
26.2
26.4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4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